

보도시점

2025. 4. 18(금) 11:00

배포

2025. 4. 17.(목)

산불대응과 통상·AI 지원 등을 위한 12.2조원 규모 '필수 추경' 편성

- 재해·재난 대응 3.2조원, 통상·AI 지원 4.4조원, 민생 지원 4.3조원 등 지원 -
- 시급한 현안과 직결되고, 효과성이 높으면서, 신속 집행가능한 사업 중심 선별 -

정부는 4.18(금) 국무회의에서 산불대응 및 통상·AI 지원 등을 위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.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12.2조원 규모로 ①재해·재난대응 3.2조원, ②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.4조원, ③민생 지원 4.3조원, ④기타(국채이자, 주요행사 개최 등) 0.2조원으로 구성된다.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경 목적과 직접 관련되며 효과성이 높고, 신속 집행이 가능한 필수 사업만을 선별하였다. 추경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4.1조원 활용하고, 부족한 8.1조원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였다. 추경안은 4.22(화)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예산실 예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정민 (044-215-7130)
		담당자	서기관	정민철 (jmc71j@korea.kr)